

휴비스, 재활용 원사 나이키에 공급

PET병 재활용한 에코에버 ... 2010 월드컵 대표팀 유니폼 소재 선정

휴비스가 남아프리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입게 될 유니폼 소재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 재활용 원사를 공급했다.

휴비스는 한국 월드컵 대표단의 유니폼이 PET병 재활용 원사인 <에코에버>로 제작됐다고 5월12일 발표했다.

휴비스 관계자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의 유니폼보다 15%나 가벼워 13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첨단 과학의 결정체”라고 소개했다.

에코에버는 버려진 PET병을 수거해 정제작업을 거쳐 원사를 뽑아낸 것으로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CO₂) 발생량을 30%까지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휴비스는 모회사인 삼양사로부터 PET병으로 만든 원료를 공급받아 에코에버를 생산한 후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제작하는 나이키에 공급한다. PET병 8개면 월드컵 선수단이 입는 티셔츠 1장을 생산할 수 있다.

에코에버는 선수단 유니폼 외에 붉은 악마 응원단의 티셔츠 제작에도 활용될 예정이어서 월드컵 특수로 PET병이 200만개 이상 재활용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휴비스 관계자는 “PET병 재활용 원사는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시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흡한속건 기능과 악취를 없애주는 향균방취 기능이 있어 월드컵 선수단의 최첨단 유니폼으로 재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5/12>